

# 대학 신입생이 인식한 진로자기이해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이숙정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Anxiety as perceived by College Freshmen

Sook-Jeong Lee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이 인식한 진로자기이해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진로지도와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신입생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변량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계열에 따른 연구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자기이해, 흥미유지, 선택/과정/결과 불안 및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자기이해와 그릿은 정적 상관, 진로불안은 부적 상관이었으며, 그릿과 진로불안은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자기이해는 그릿과 진로불안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자기이해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그릿의 부분 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미결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상담과 진로지도 정책과 프로그램 고도화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anxiety as perceived by college freshmen, and to use it as basic data for career guidance and education programs. A survey was conducted on 221 freshmen enrolled in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Career self-understanding, grit, and career anxiety scales were used to measure the study variabl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variate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the SPSS WIN and AMOS 26.0 programs.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the major fields reveal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self-understanding, consistency of interest, 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an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and one's preferences. Seco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showed that career self-understanding and grit were positively correlated, career anxiety was negatively correlated, and grit and career anxiety were negatively correlated. Las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grit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anx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career counseling and the advancement of career guidance policies and programs for college freshmen.

**Keywords** : Career Self-understanding, Grit, Career Anxiety, College Freshman, Mediation Effect

본 논문은 2023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ook-Jeong Lee(Sookmyung Women's Univ.)  
email: leesjeong4194@gmail.com

Received January 30, 2024

Revised February 26, 2024

Accepted April 5, 2024

Published April 30, 2024

##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상황적인 판단을 토대로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산업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게 되는 진로불안의 지속은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1], 정부와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진로불안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진로 의사결정 이전과 그 과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친다. 진로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진로 미결정 상태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을 내포하고 있다[2]. 불안 수준이 높으면 진로결정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유발되고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5]. 따라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와 관련된 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6], 그리고 결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행되었던 진로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은 그 선행 변인으로 자기(self)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탄력성,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성 등[5,7,8]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진로 영역에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인지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한 연구[6]에서는 진로관련 연구들에서 원천적인 인간발달 단계 요인으로서의 심리적 요인은 물론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 이해는 명확한 자기이해와 현재의 상황판단은 진로를 다양하게 계획하고 새롭게 탐색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이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진로자기이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일과 관련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자기 자신의 심리적·환경적 특성에 대한 자기이해”로 [9], 자신의 인지적 능력과 흥미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0]. 따라서 진로자기이해 수준이 높

은 사람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잘 알고, 자신의 직업 적성과 진로 분야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강점 및 한계점까지도 잘 파악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진로 불안 수준이 낮고 진로 및 직업 선택 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탐색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과 진로 준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자기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11].

그런데 진로준비 과정은 대학 입학 이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실천의 과정이다. 더구나 입시에 몰입해야 하는 경쟁적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의 시기가 대학 입학 후까지 확장되면서, 대학 생활 초기 단계부터 전반적인 생애 설계 로드맵을 토대로 삶의 비전을 갖고 진로와 관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중요 과업이 되었다. 또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업들을 추진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얼마나 언제까지 유지되는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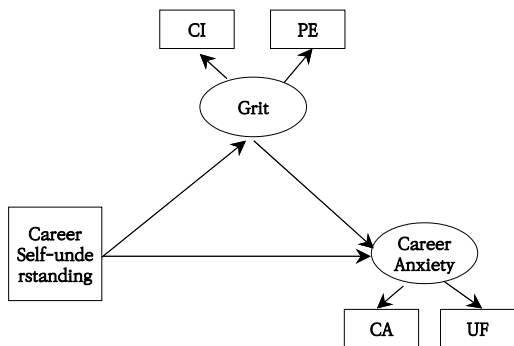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그릿(Grit)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열정과 능력”으로[12], 2007년 Duckworth와 동료들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이다. 특히 그릿은 개인의 강점을 통한 성장과 발달에 주목하고 있는 긍정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13],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역경이나 진전이 없는 정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흥미를 잃지 않고 노력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릿은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한 가지 목표나 관심을 유지하는 열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흥미(관심)유지, 다른 하나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와 인내를 의미하는 노력지속이다[12].

그릿은 진로준비 과정에서 겪는 방해 요소 및 스트레스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격 차원으로[14], 단순히 개인의 직업적 성공뿐 아니라 행복, 심리적인 건강 등을 포괄적으로 예측하는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 진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주변의 도움이 없이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정서인 그릿은 진로자기이해와 함께 진로불안을 낮추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6].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그릿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6,15],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16]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그릿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진로와 연관된 변인들 사이에서 매개효과도 검증하고 있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17],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18],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19], 그릿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최근 한 연구[20]에서도 대학생의 전공 흥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고 그릿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성찰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6]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인성, 가치관 등을 우선 파악하여 이해하고 장기적 목표 성취를 위한 진로준비 과정에서 그릿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년간에 걸쳐 흥미를 잃지 않고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신념이나 성향이 없다면, 오히려 진로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진로는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변화의 개념이고, 그릿은 후천적인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1]. 만일 진로자기이해와 진로불안의 관계 사이에서 그릿의 유의한 매개 역할이 확인된다면, 대학생의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진로불안을 낮추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관련 실증 연구들과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 간 영향 관계를 설정하고 Fig.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CI(Consistency of Interest), PE(Perseverance of Effort), CA(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UF(Uncertainty about the Future & One's Preference)

Fig. 1. Research Model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S. H.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4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되지 않거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9.67세(SD=0.75), 연령 범위는 18세~21세이며, 성별 분포는 여학생 116명(52.5%), 남학생 105(47.5%)이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기에, 전공 계열은 다양하였다. 인문·사회 71명(32.1%), 자연 과학 64명(29.0%), 공학 56명(25.3%), 예술·체육학 30명(13.6%)이다. 예비 연구에서 본 연구의 변인들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 진로준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진로자기이해

대학 신입생의 진로자기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최윤경과 김성희[9]가 개발하고 타당화 한 진로 준비 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진로자기이해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한 자기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측정한다(예, 나는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강점을 잘 알고 있다). 총 10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0.84이다.

#### 2.2.2 그릿

대학생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와 Quinn(2009)이 개발한 Grit Scale(Grit-S)을 국내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3]. 이 척도는 흥미유지 4개 문항(예, 나는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와 노력지속 4개 문항(예, 어려움은 나를 꺾지 못한다)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흥미 유지 4개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0.80(0.74-0.81)이다.

### 2.2.3 진로불안

진로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결정의 어려움 관련 정서 및 성격 척도의 대학생용 한국 축소판 도구[3]의 하위변인 중 진로불안에 해당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선택/과정/결과 불안,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이미 특정 직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내 선호에 맞지 않을까 봐 두렵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0.91이다.

###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문항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전공계열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chi^2$  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적합도 지수도 고려하였다[22].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며, RMSEA는 .08이하면 적절한 적합도(resonable fit),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간주된다.

## 3. 연구 결과

### 3.1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의 차이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Scheffé 사후 검증을 통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진로자기이해와 흥미유지, 노력지속의 평균은 공학계열에서 가장 높았고, 선택/과정/결과에 대한 불안 및 미래와 선호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공학계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 노력지속을 제외하고 진로자기이해, 흥미유지, 선택/과정/결과 불안 및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5, .01$ ).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진로자기이해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의 평균( $M=3.45$ )과 공학계열의 평균( $M=3.72$ ) 차이가 Scheffé 사후 검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흥미유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의 평균( $M=3.08$ )과 공학계열의 평균( $M=3.48$ ) 차이가 Scheffé 사후 검증에서 유의하였다. 선택/과정/결과 불안은 인문·사회계열( $M=3.23$ )의 평균과 공학계열( $M=2.71$ )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미래/선호도 불확실성도 인문·사회계열의 평균( $M=3.17$ )과 공학계열의 평균( $M=2.65$ )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Analysis of Differences by Major Field

| Variables | Major | N   | M    | SD    | F       | P    | Scheffé |
|-----------|-------|-----|------|-------|---------|------|---------|
| CS        | 1     | 71  | 3.45 | .584  | 4.732** | .003 | 1.2<3*  |
|           | 2     | 64  | 3.45 | .589  |         |      |         |
|           | 3     | 56  | 3.76 | .538  |         |      |         |
|           | 4     | 30  | 3.72 | .567  |         |      |         |
|           | Total | 221 | 3.56 | .586  |         |      |         |
| CI        | 1     | 71  | 3.08 | .652  | 4.030** | .008 | 1<3*    |
|           | 2     | 64  | 3.19 | .713  |         |      |         |
|           | 3     | 59  | 3.48 | .615  |         |      |         |
|           | 4     | 30  | 3.27 | .545  |         |      |         |
|           | Total | 221 | 3.24 | .661  |         |      |         |
| PE        | 1     | 71  | 3.17 | .647  | 2.309   | .077 | -       |
|           | 2     | 64  | 3.11 | .706  |         |      |         |
|           | 3     | 56  | 3.40 | .630  |         |      |         |
|           | 4     | 30  | 3.16 | .523  |         |      |         |
|           | Total | 221 | 3.21 | .651  |         |      |         |
| CA        | 1     | 71  | 3.23 | .808  | 4.287** | .006 | 1>3*    |
|           | 2     | 64  | 3.14 | .891  |         |      |         |
|           | 3     | 56  | 2.71 | .888  |         |      |         |
|           | 4     | 30  | 3.12 | .828  |         |      |         |
|           | Total | 221 | 3.06 | .875  |         |      |         |
| UF        | 1     | 71  | 3.17 | .834  | 3.587*  | .015 | 1>3*    |
|           | 2     | 64  | 3.09 | .945  |         |      |         |
|           | 3     | 56  | 2.65 | 1.032 |         |      |         |
|           | 4     | 30  | 3.03 | .883  |         |      |         |
|           | Total | 221 | 2.99 | .943  |         |      |         |

\* $p < .05$ , \*\* $p < .01$

CS(Career Self-understanding), CI(Consistency of Interest), PE(Perseverance of Effort), CA(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UF(Uncertainty about the Future & One's Preference)/ Major: 1=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Natural Science, 3=Engineering, 4=Art and Physical Education

### 3.2 변인들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고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 Variables | CS      | CI      | PE      | CA     | UF |
|-----------|---------|---------|---------|--------|----|
| CS        | -       | -       | -       | -      | -  |
| CI        | .438**  | -       | -       | -      | -  |
| PE        | .344**  | .790**  | -       | -      | -  |
| CA        | -.470** | -.447** | -.423** | -      | -  |
| UF        | -.526** | -.422** | -.410** | .772** | -  |

\*\*p<.01  
 CS(Career Self-understanding), CI(Consistency of Interest),  
 PE(Perseverance of Effort), CA(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UF(Uncertainty about the Future &  
 One's Preference)

진로자기이해는 단일 변인이지만, 그릿과 진로불안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변인별로 살펴보면, 진로자기이해와 흥미유지는 .438, 노력지속은 .344의 정적 상관, 선택/과정/결과 불안은 -.470, 미래/선택도 불확실성은 -.526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흥미유지와 선택/과정/결과 불안은 -.447, 미래/선택도 불확실성도 -.422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노력지속과 선택/과정/결과 불안은 -.423, 미래/선택도 불확실성은 -.410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3.3 연구모형 검증

진로자기이해가 그릿을 매개로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고려되는 항목들을 살펴본 결과,  $\chi^2=6.620(df=3, p>.05)$ ,  $\chi^2/df=2.207$ 이고, CFI=.993, TLI=.978로 양호하였으며, RMSEA=.074로 나타나 연구 모형은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Model Fit Indices

| Fit Indices | $\chi^2(df)$ | $\chi^2/df$ | CFI  | TLI  | RMSEA | (90%, C.I.)  |
|-------------|--------------|-------------|------|------|-------|--------------|
|             | 6.620(3)     | 2.207       | .993 | .978 | .074  | (.000, .1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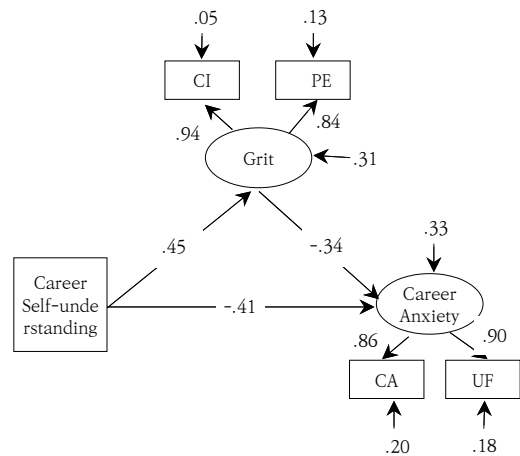
변인들 간 영향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Structural Coefficient Estimates of the Research Model

| Path                                       | B     | $\beta$  | SE   | C.R.   |
|--|-------|----------|------|--------|
| Grit ← Career Self-understanding           | .481  | .451***  | .069 | 7.016  |
| Career Anxiety ← Career Self-understanding | -.530 | -.414*** | .089 | -5.970 |
| Career Anxiety ← Grit                      | -.412 | -.341*** | .090 | -4.554 |

\*\*\*p<.001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살펴보면, 진로자기이해는 그릿( $\beta=.451,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진로불안( $\beta=-.414, p<.001$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도 진로불안( $\beta=-.341, p<.001$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자기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아지며, 진로불안은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최종 모형은 Fig. 2에 제시하였다.



CI(Consistency of Interest), PE(Perseverance of Effort),  
 CA(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UF(Uncertainty about the Future & One's Preference)

Fig. 2. Final Model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 간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그릿에 대한 진로자기이해의 직접효과는 정적 영향( $\beta=.451, p<.001$ )을 주었다. 진로불안에 대한 진로자기이해의 직접효과는  $\beta=-.414(p<.001)$ , 간접효과는  $\beta=-.154 (p<.001)$ , 총 효과는  $\beta=-.568(p<.001)$ 로 나타났다. 진로불안에 대

한 그릿의 직접효과는 부정 영향( $\beta = -.341, p < .001$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                | Path                        | Direct   | Indirect | Total    |
|----------------|-----------------------------|----------|----------|----------|
| Grit           | ← Career Self-understanding | .451***  | -        | .451***  |
| Career Anxiety | ← Career Self-understanding | -.414*** | -.154*** | -.568*** |
| Career Anxiety | ← Grit                      | -.341*** | -        | -.341*** |

\*\*\* $p < .001$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자기이해와 그릿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검증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계열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진로자기이해와 흥미유지, 노력지속의 평균은 공학계열에서 가장 높았고, 선택/과정/결과 불안 및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은 공학계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 노력지속을 제외하고 진로자기이해, 흥미유지, 선택/과정/결과 불안 및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예체능 계열 대학생들의 그릿이 인문계열보다 높고, 진로장벽은 공학과 자연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보다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다[15].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와 가중된 취업난으로 인해 인문계 취업 시장이 더 좁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계열 전공 학생들이 다른 계열에 비해 진로불안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진로자기이해와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진로자기이해와 진로불안(선택/과정/결과 불안, 미래/선호도 불확실성),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과 진로불안(선택/과정/결과 불안,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은 부정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각각의 상관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진로자기이해와 진로계획의 관계[8],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6]와 유사한 결과다. 진로자기이해는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심리적·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9], 그것은 인식과 태도를 넘어 실제 목표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행동을 함축하고 있다 [15]. 따라서 자기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도 높아지는 정적 상관인, 반대로 진로불안은 낮아지는 부정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릿은 진로준비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15], 진로불안과 부정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생이 인식한 진로자기이해는 그릿과 진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두 변인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자기이해가 진로계획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8], 대학생의 성찰 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6]와 유사한 결과다. 이는 진로불안에 대한 인식에 자기이해 및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는 그릿이 진로불안에 부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불안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릿과 진로 관련 선행연구[15,17,19]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청년취업난 속에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학 입학부터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은 관심 분야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열정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6]. 특히, 교양수업을 많이 수강하는 신입생들의 경우, 교양대학과 소속 교원을 중심으로 개별 학생들의 니즈 파악과 반복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진로개발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입생 대상은 교양대학 중심의 진로교육을, 재학생 대상은 전공 및 취업계열 중심의 진로지도가 병행 운영된다면, 성숙한 자기이해와 그릿의 향상을 통해 적극적인 진로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공계열에 따라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안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위한 맞춤형 진로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에 대한 진로지도의 조기 개입을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신입생의 진로자기이해와 그릿, 진로불안의 특성들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상급 학년들의 진로 관련 특성들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신입생부터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년의 재학생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의 어려움과 관련된 정서인 진로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개인적 차원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물론 진로불안이 진로 (미)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 진로불안이 구체적인 진로관련 행동 변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단계별 진로개입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N. Saka, I. Gati,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1, No.3, pp.340-358, Dec. 2007.  
DOI: <https://doi.org/10.1016/j.jvb.2007.08.003>
- [2] K. Min, B. Kim, "A validation study of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2, pp.109-131, Jun. 2014.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886070>
- [3] M. S. Kim, K. J. Y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Korean short version of the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scale with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3, pp.65-94, Sep. 2014.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915456>
- [4] V. M. DeRoma, K. M. Martin, M. L. Kessler, "The relationship between tolerance for ambiguity and need for course structure",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Vol.30, No.2, pp.104-109, Jun. 2003. Available from: <https://psycnet.apa.org/record/2003-06550-003>
- [5] Y. Kim, M. Kang, A. Cho, Y. Lee,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decisiveness on the relations among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3, No.4, pp.995-1016, Dec. 2011.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604523>
- [6] A. Hong, E. Hwang, Y. Jo, Y. Kim, M. Choi,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reflective learn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6, No.4, pp.1-21, Dec. 2017.  
DOI: <https://doi.org/10.37210/JVER.2017.36.4.1>
- [7] J. S. Yoon,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Korea, 2004.
- [8] H. Cho, E. S. Lee, B. Son,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career plann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career self-understand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1, No.4, pp.975-999, Dec. 2020  
DOI: <https://doi.org/10.15753/aje.2020.12.21.4.975>
- [9] Y. K. Choi, S.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Oct. pp.2085-2097,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5.201210.2085>
- [10] E. Lim, Y. K. Jung, C. G. Youn, "The effects of the vocational aptitude inventory on self-knowledge and career decis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16, No.1, pp.1-16, May. 2003.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0878709>
- [11] S. Kim, J. Kim,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0 No.1, pp.119-136, Apr. 2013.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766940>
- [12] A. Duckworth, C. Peterson, M. Matthews, D.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ersonality*, Vo.92, No.6, pp.1087-1101, June.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13] H, J. Lim, "An Exploratory study on grit's factor structure and its valid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8, No.2 pp. 169-192, Jun, 2017.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4299>
- [14] S. Heo, *The Relationship among Resilience,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Korea, 2013.
- [15] H. J. Seo, J. Y. Lee, "The relationships among grit,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4, pp.1259-1284, Dec. 2021.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

[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2689411](https://doi.org/10.33645/cnc.2021.12.43.12.941)

- [16]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level, and grit of undergraduate students", *Culture and Convergence*, Vol.43, No.12, Dec. 2021.  
DOI: <https://doi.org/10.33645/cnc.2021.12.43.12.941>
- [17] E. H. Hwang,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in college students*,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Korea, 2017.
- [18] E. Y. Yang, G. Le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service: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35, No.5, pp.145-161, May. 2021.  
DOI: <https://doi.org/10.21298/IJTHR.2021.5.35.5.145>
- [19] H. S. Song, Y. J. Choi, "Mediation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3, No.1, pp.65-83, Mar. 2020.  
DOI: <https://doi.org/10.32341/JCER.2020.03.33.1.65>
- [20] Y. O. Park, "The affect of gri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their career choice motivation, emotional commitment,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1, No.1, pp.135-157, Mar. 2021.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1.11.1.006>
- [21] J. E. Kim, Y. J. Cho, J. I. Jung, "Effects of grit improvemen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grit and career anxie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2, pp.157-162, Mar.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2.157>
- [22] L. Hu,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No.1, pp.1-55, 1999 (Published online Nov. 200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이 숙 정(Sook-Jeong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 2011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교양교육, 진로교육, 교육심리